

영암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기 발주

상반기 취약시설 508건에 106억 투입... 자체설계로 7억원 예산절감

“전동평 군수 “지역주민 의견 적극 반영해 현장위주 책임행정 실현”

영암군은 마을 생활환경이 불량하거나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해소하고자 세해 초부터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동안 소외되거나 불편한 농촌생활 기반시설 위주로 고품화 정주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취약한 농업기반 시설도 기계화농업이 가능토록 동시 추진한다.

급변 소규모사업은 총 508건으로서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인 마을안길, 축대, 광장 진입로 확보장, 취약시설에 340건,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168건으로 용·배수로와 농로포장사업을 시행한다. 주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하고 사업비 106억원도 상반기 내에 모두 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미 해결된 주민

불편사항이나 건의내용을 수시 청취하여 주민행복지수를 높이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를 현실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영암군 기술직 공무원과 전문기술자가 참여한 합동설계단(2기 팀, 6반)은 안전건설과장(고승철)을 중심으로 20여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영암군 자체설계로 7억여원

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경험이 부족한 읍·면 신규 직원들 간의 협동심 고취와 현장경험을 통해 건설 기술 노하우를 향상시키고 행정업무 제고 및 자기계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취약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위주 책임행정’을 실현,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정주하고 싶은 내고장! 살기 좋은 영암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지난 16일 강진농협 농자재백화점 회의실에서 마늘·양파 지원사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강진군, 마늘·양파산업 8억8천여만원 투입

지난해 비 2배 늘어... 농가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도모

강진군이 지난 16일 읍면 대표농가 및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농협 농자재백화점 2층 회의실에서 마늘·양파 지원사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2018년도 마늘·양파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군은 지난해 하반기 마늘·양파 재배면적 확대 및 주요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기 위해 종구(종자) 지원사업 확대 및 양파 파종, 이식 일관 기계화 작업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했다. 올해도 마늘·양파 파종기 고품질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늘 건조시설, 양파 기자재, 영양제 지원사업 등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증가한 사업비 8억8천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읍면 대표농가들 또한 행정적인 지원에 힘입어 소득증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를 맞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협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강진원 군수는 “2018년은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로 향후 농업인 소득 6천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마늘·양파산업에도 지원이 소홀함이 없이 올해도 참석하신 읍면 대표자 여러분의 활발한 영농활동과 긍정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강진원 2018년산 마늘·양파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5.8% 증가한 513ha로 마늘은 작면면, 양파는 군동면읍을 중심으로 면적이 늘어 효과적으로 자리잡고 있어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내 몸 균형 잡아요” 곡성군, 요가·밸런스워킹교실 운영



곡성군은 관내 경로당에서 ‘동절기 경로당 요가·밸런스워킹교실’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관내 33개 경로당에서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야외활동 감소로 인한 어르신들의 체력저하를 방지하고 근력강화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요가·밸런스워킹교실을 주 2회 운영하고 있다.

곡성군보건의료원은 요가·밸런스워킹교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건강지도자를 양성해 지역 인

적자원을 확보하고 주민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요가수업에 참여한 한 주민들은 “무겁던 다리가 쉼쉼해지고,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없었는데 수업시간에 웃으니 소화도 잘되고 잠도 잘 온다”며,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튼튼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곡성 주민으로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영라 보건의료원장은 “무병장수를 꿈꾸는 100세 시대에 맞춰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실천 행복추진 프로그램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광희 기자

“빈집포 활용해 창업의 꿈 이루세요” 해남군, 청년 창업가 최대 2천만원 지원

육군대위로 전역 후 고향에서 농사를 짓던 박모씨(29세)는 최근 드론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으로 창업의 꿈을 이뤘다.

드론 분야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영상제작과 항공 방제기술을 꾸준히 익혀왔지만 막상 현장에 활용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런 그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 것이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이다.

해남군의 빈집포 활용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통해 15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업체의 문을 연 박씨는 드론 방제분야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큰 꿈을 키우고 있다.

일자리 시책사업으로 처음 추진돼 2개소가 선정된 가운데 이번 모집을 통해 1~4개소를 추가하게 된다.

빈집포 활용 청년창업 지원은 관내 빈집포를 대상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창업에 따른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점포당 500만원~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만18세 이상 49세 이하로 지원제외 대상업종 창업자, 금융기간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오는 2월 2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지원 후 해남군청 지역개발과 일자리경제팀(061-530-5824)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해남김’ 브랜드화 통한 경쟁력 강화

지난해 말 7억원 투입해 포장재 35만장 86개소에 공급

전국 최대 물김 생산지이자 김 가공산업 메카 해남이 ‘해남김’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말 7억원을 투입해 ‘방글해남 김’ 브랜드 포장재 35만장을 관내 김·자반 가공공장 86개소에 공급했다. 이는 해남김이 신안 등의 상표로 유통되면서 해남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시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올해까지 100만장의 포장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전국 최대 김 생산지 해남의 명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김 산업의 종합적인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해남군의 주도형 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원초의 수급과 안전성 확보, 차별화된 제품개발을 비롯해 생산기공 기반확충, 6차 산업과 연계 개발을 마련은 물론 수출 주력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김 가공식품의 주도적 역할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날씨·먹거리·인프라 최고’ 목표,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

목포가 따뜻한 날씨와 맛있는 먹거리, 편리한 여건 등으로 겨울철 최고의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축구와 육상, 수영, 카누, 유도 등 선수와 관계자 6만 여명이 찾아 50여 여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뒀다.

목포는 목포국제축구센터를 비롯해 유달경기장, 실내육상 트레이닝장, 실내체육관, 영산호 카누장 등 최첨단의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목포의 대표적 훈련장인 국제축구센터에서는 올 겨울에도 대한축구협회 연례별 축구대표팀 훈련, 심판교육, 지도자 교육 뿐만 아니라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팀, 포로팀,

실업팀, 중국 등 해외팀이 전지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달경기장도 육상국가대표 후보 선수단과 전국의 중고등학교 육상 선수들이 열기를 뽐내고 있다.

날씨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훈련할 수 있는 실내육상 트레이닝장은 지난 2016년 12월 개장해 전천후 훈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